

성경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묵상(170)(5/26/2022)

제 3 권 내적 위로

제 45 장 사람은 말에서 실수하기 쉽기 때문에, 사람들의 말을 함부로 믿지 않아야 함, 1-2 절

시 60:11 -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호 11:12 -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습 3:17 -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1. <제자> 주여, 사람의 도움은 헛되오니, 환난의 때에 나를 도우소서(시 60:11).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람을 믿었다가 배신을 당한 경우가 비일비재하였고, 거의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도움을 얻은 경우도 많았습니다. 따라서 사람에게 소망을 두는 것은 헛되고, 의인들의 구원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주 하나님이지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서 오직 주님만이 찬송을 받으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늘 흔들리는 불안정한 존재여서, 쉽게 속고 금세 변합니다.

2. 모든 일에서 극히 조심스럽고 용의주도해서 어떤 경우에도 속거나 헛갈리는 일이 없어서 자기 자신을 잘 지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를 신뢰하고 일심으로 주를 찾는 사람은 그렇게 쉽게 미끄러져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 어떠한 환난에 아무리 깊이 빠져 있더라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거기로부터 속히 건짐을 받거나(잠 10:29), 그 가운데서도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주께 소망을 두고서 끝까지 주를 붙드는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친구가 계속해서 온갖 곤경을 겪고 있을 때, 그 친구에게 끝까지 신의를 지키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주여, 오직 주님만이 모든 일에서 지극히 신실하시고, 주님 외에 그렇게 신실한 이는 결코 없습니다.

말씀과 해설: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성숙한 지식과 함께 가야 한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인간의 실존에 대해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알게 그 앞대로 행할 수 있다. 성경을 보라. 성경에 많은 내용들이 바로 이 부분에 집중되어 있다.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은, 하나님과 대비되는 모습을 통하여 드러난다.

1) **하나님은 진정한 구원자이시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다.** 시 60:11 -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인간은 너무나 연약한 입김과도 같은 존재이다. 시 61:8-9 - 8. 백성들이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9.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우리가 연약한 인간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려고 하는 이유는, 인간이 가진 가시적인 힘과 권력에 현혹되어 마치 그것이 진정한 힘이며 영원할 것과 같은 착각 속에 빠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 146 편 저자는 다음과 같이 노래했다. 시 146:3-4 - 3.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4.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흠으로 돌아가서 그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시편 저자는 이 구절에서 인간의 실존을 분명히 알게 한다. 인간은 호흡에 의존하는 매우 연약한 존재이다. 그러면서,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시 146:5)라고 고백했다. 누가 복 있는 자인가?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자는 부한 자도 아니고, 권력자도 아니며, 수많은 사람들을 거느리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진정한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이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인간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물질을 비롯해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를 지탱해 줄 수 있으며 유익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되는 그 어떤 것을 붙잡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간다. 인간의 연약함을 깨달은 다윗은 시 62:10-11 에서, “10.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11.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라고 고백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주의 백성은 사람이 가진 물질, 권력, 힘과 그 외에 이 땅에 속한 어떤 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붙잡으며 애착을 가지지 않는다.

2) 하나님은 신실하시지만 인간은 신실하지 않다. 신 7:9 -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호 11:12 -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지만 인간은 거짓되며 약속을 어긴다. 민 23:19 -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우리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다.

3)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지만, 인간은 그렇지 않다. 시 31:6 -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요 14:16 -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신다. 습 3:17 -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전지전능하시고 신실하시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우리의 진정한 힘과 능력과 위로가 되신다. 사 41:10 -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인간이 영원한 동행자가 아닌 이유는, 인간은 연약하며 결국은 죽을 수 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와 함께 인간은 신의를 저버리고 떠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고난 속에 수도 없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저버리고 거역하며 불순종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이 멸망한 한 이유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이다. 예수님도 열두 제자의 배신을 경험하셨다. 이러한 인간과 대비되는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동행하신다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행의 역사 때문에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의심, 두 마음, 두려움, 불순종 등 모든 부정적이고 죄악된 것들을 내려 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을 믿고 바라며 주님과 온전히 동행함으로 참된 승리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자.

함께 나눌 기도 제목.

1.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온전히 붙잡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2. 교회학교가 사라지고 있는 많은 교회들이 믿음의 대를 잇게 하시고 주님의 남은 자들을 통하여 다시 새롭게 일어나는 회복의 역사를 주옵소서.
3. 삶의 다양한 환난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교우들에게 진정한 응답과 해결의 은총을 주옵소서.
4.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게 하옵소서(시 19:14).